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송 지 은* · Nadine F. Marks**

본 연구는 미국 노인의 두 조사 시점에 걸친 결혼 상태(지속적 유배우, 배우자 상실, 지속적 무배우) 및 은퇴 상태(지속적 은퇴, 은퇴 전이, 지속적 취업)가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우울감, 행복감, 자긍심,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성별의 증재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전국규모 종단자료인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T1-T2: 1987-1993)의 50세 이상 응답자 1,79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T1-T2 간 배우자 상실은 우울감 증가 및 행복감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T2 지속적 무배우 상태는 통제감의 증가와 관련되며, T1-T2 지속적 무배우 상태인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 무배우 상태의 여성과 달리 현저하게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T2 지속적 은퇴 상태는 우울감 증가, 자긍심 저하, 통제감 저하와 관련되었다. T1-T2 간 은퇴전이는 자긍심 저하와 연관되었다. 은퇴와 정신건강 저하간의 관련성을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이상의 결과들은, 은퇴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적 증재요인의 규명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핵심단어: 결혼 상태, 은퇴 상태, 정신건강, 우울감, 행복감, 자긍심, 통제감, 종단적 연구

I. 서론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노년기가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노년기의 장기화에 따른 부양 및 건강과 관련된 공적/사적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노년기 건강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바이다. 한편, 성인기 이후의 건강을 논의함에 있어서 직업 및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은 개인의 자아와 정체감 형성의

* 위스콘신대학교 노인연구소 연구원

** 위스콘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축을 이루는 주요 맥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역할/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은퇴는 개인에게 의미와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주요 맥락의 하나인 직업역할/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정체감을 상실했다는 느낌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Thoits, 1983). 은퇴로 인한 직업 영역으로부터의 철수는 또한 실질적으로 직업역할과 관련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은퇴한 개인이 정신건강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산업 전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50대에서도 은퇴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Quadagno, 1999), 다수의 노년기 성인이 은퇴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 정신건강의 관련요인으로서의 은퇴 상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역할의 점유 여부와 정신건강의 관련성 또한 유사한 논리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성인기 역할정체감의 또 다른 주요 축인 가족 역할 중 배우자 역할이 갖는 건강상 함의에 대한 논의와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보인다는 점이 비교적 일관되게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가족 역할 및 배우자 역할은 직업역할과 함께 성인기 역할/정체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혼이나 사별을 통한 배우자 역할의 상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를 이루어온 주요 축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더불어, 배우자 역할의 상실은 역할과 관련한 정체감의 상실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손실과 부정적 변화들을 가져온다. 즉, 배우자 상실은 경제적 안정성의 저하, 사회적 관계망 및 지원망의 축소와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관계망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유의미한 관계가 갖는 의미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사회감성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의 논리를 고려해 볼 때(Carstensen, Fung and Charles, 2003), 노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결혼 상태의 지속성이나 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및 은퇴 상태가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다수는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Kim and Moen, 2002; Price and Joo, 2005). 이는 직업 영역

을 주로 남성의 역할영역으로 간주하는 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여성은퇴자들이 경험하는 은퇴이후 정신건강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의 직업영역 참여 증가를 고려할 때, 여성취업자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퇴와 그 이후의 건강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본다. 한편, 다수의 은퇴 적응 연구들이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횡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은퇴 상태와 정신건강 변화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부족한 점 또한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Kim and Moen, 2002). 한편, 다른 연령대의 경우와 달리 노년기 결혼 상태의 지속성이나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단편적이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노년기 결혼과 은퇴 상태가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미국의 전국규모 종단자료인 NSFH(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1988-1993)의 두 시점에서의 자료를 분석하여 두 조사 시점에 걸친 결혼과 은퇴 상태의 지속성 및 변화(T1-T2 지속적 무배우, T1-T2 배우자 상실, T1-T2 지속적 유배우, T1-T2 지속적 은퇴, T1-T2 은퇴전이, T1-T2 지속적 취업)가 노년기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우울감, 행복감, 자긍심,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이에 성별이 미치는 증재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 상태와 정신건강

결혼 상태와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결혼의 건강 증진효과를 보고해왔으며, 무배우 상태인 개인에 비해 유배우 상태인 개인이 보다 나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Ross, Mirowsky and Goldsteen, 1990; Cotten, 1999; Barrett, 2000; Pienta, Hayward and Jenkins, 2000). 이러한 결혼의 건강상 혜택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고 실증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선택효과 모델(selection model)이 그 하나인데, 이는 개인이 배우자 선택 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이 배우자로 선택받아 결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건강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결국, 결혼에 이를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들이 무배우 상태로 남게 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결혼 상태를 지속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논리이다(Goldman, 1993; Fu and Goldman, 1996).

두 번째는 결혼으로 인해 얻게 되는 환경적 특성이 기혼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결혼 자원 모델(marital resource model) 혹은 결혼 보호 모델(marital protection model)이다.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많은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을 누리며, 보다 건강하고 위험성이 덜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향유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Ross, Mirowsky and Goldstein, 1990; Umberson, 1992; Ducharme, 1994). 한편, 결혼의 건강증진 효과에 남녀간 성차가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감정적, 물리적 혜택을 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상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본다(Antonucci and Akiyama, 1987).

위기 모델(crisis model)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건강상태의 차이가 별거/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관계의 해소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긴장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하는 시점에서는 건강상태가 결혼 상태를 지속하는 집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결혼 해소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이후에는 이들 무배우자와 유배우자 간의 건강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Booth and Amato, 1991). 실제로 이러한 위기모델의 가정을 지지하는 실증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바 있는데, 이혼을 경험한 개인의 경우 이혼 직전과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정신건강이 저하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과정을 거치게 되어, 지속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한 개인과 비교해볼 때 정신건강 상 유의한 차이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Booth and Amato, 1991), 사별이 남은 배우자의 정신건강을 저하시키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McCrae and Costa, 1993; Brockmann and Klein, 2004). 이렇듯 위기이론의 논리나 실증연구가 제시하는 사별이나 이혼 등의 결혼관계 해소와 지속기간이 갖는 건강상 함의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배우 상태를 T1과 T2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무배우인 경우와 T1과 T2 사이에 결혼관계의 해소나 사별을 경험한 경우로 분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혼이나 사별 혹은 독신상태와 건강 저하의 관련성에 남녀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우울감의 증가가 여성에 비해 특히 남성에게서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Umberson, Wortman

and Kessler, 1992). 한편, 이혼 경험은 배우자 상실에 따르는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 및 재정적 안전망의 상실을 초래하여 개인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결국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건강상 부정적 영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등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이후 재정상태의 악화가 보다 두드러진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mock, 1993; Smith and Zick, 1994; Williams and Umberson, 2000).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연구들은 결혼 상태의 지속성 및 변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여 왔다. 그러나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독신)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결과와 더불어, 두 집단간 정신건강의 차이가 일부 무배우 집단(이혼,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 역할 상실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며, 이러한 관련성들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결혼 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중 소수만이 노년기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관련성의 검증을 시도한 바, 노년기 정신건강에 다양한 결혼 상태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NSFH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응답자들의 T1과 T2에 걸친 결혼 상태의 지속성과 변화가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은퇴 상태와 정신건강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즉, 은퇴가 정신건강을 저해한다는 결과(Walker, Kimmel and Price, 1981; Bosse et al., 1990), 반대로 은퇴 이후 정신건강이 향상된다는 결과(Maidanik et al., 1995), 및 은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Ross and Drentea, 1998). 또한, 은퇴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은퇴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나서, 남성의 경우 은퇴 초기에는 정신건강이 향상되지만 은퇴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신건강의 저하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제시되고 있다(Gall, Evans and Howard, 1997; Kim and Moen, 2002).

은퇴가 개인의 정신건강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입장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역할 정체감 이론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은퇴는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준거로 작용하는 직업역할/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자는 삶의 중요한 역할/정체감을 상실했다는 느낌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oits, 1983; George, 1993).

은퇴가 정신건강상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들은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Atchley, 1989; Richardson and Kilty, 1991)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속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은퇴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자긍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은퇴가 반드시 심리적 부적응이나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조지와 매덱스(George and Maddox, 1977)는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노년기 남성들의 생활만족도가 연구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혼 상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게, 은퇴이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은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은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높은 사기감을 보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인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Kim and Moen, 2002), 역시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일년간은 정신건강이 향상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유의한 변화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Gall, Evans and Howard, 1997).

이상에서 나타나는 은퇴 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비일관적인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직종의 다양성에서도 기인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은퇴 경과기간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은퇴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건강변화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은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서 은퇴 기간을 고려하는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의 검증에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은퇴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2 조사 시점에서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를 T1과 T2 사이의 5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경우와, T1에는 취업상태였으나 T2에 이르기 전에 은퇴를 경험한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국 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상태와 은퇴 상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지속성과 변화가 노년기에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 및 직업이 갖는 의미가 성별

에 따라 다르며 결혼 상태와 은퇴 상태가 정신건강과 갖는 관련성에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성별의 증계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배우 상태였거나(별거, 이혼, 사별, 독신) T1에 유배우 상태였으나 T1과 T2 두 시점 사이에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T2에 무배우 상태였던 응답자는,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배우 상태였던 응답자에 비해 T1과 T2사이의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 저하(우울감 증가, 행복감 감소, 자긍심 저하, 통제감 저하)를 보다 현저하게 경험할 것이다.

가설2: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거나 T1에는 취업상태였으나 T1과 T2 두 시점 사이에 은퇴 전이를 경험함으로써 T2에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는,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에 비해 T1과 T2 사이의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 저하(우울감 증가, 행복감 감소, 자긍심 저하, 통제감 저하)를 보다 현저하게 경험할 것이다.

가설3: 가설1과 가설2에서 가정한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미국의 전국규모의 종단자료인 the National Stud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차 연도(T1: 1988-1989) 자료는 13,007명의 19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주 응답자 9,637명과, 흑인, 멕시코 아메리칸,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편부모, 계부모, 동거가족, 신흥가족에 대한 부가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0,005명이 다시 2차 연도(T2: 1992-1994)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T1과 T2의 자료는 대인 면접(face-to-face interview)과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T1과 T2의 응답률은 각각 75%와 82%였다. 무응답 등에 따른 선택효과로 인한 편이를 교정하고, 응답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인구 구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가중치가 분석을 위해 제공된 바 있다(Sweet, Bumpass

and Call, 1988; Sweet and Bumpass, 1996).

본 연구의 분석에는 T1 기준으로 50세 이상인 주 응답자 1,798명이 포함되었다. 전업주부 등 생애전반에 걸쳐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되는 응답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측정도구

1) 결혼 상태

T1과 T2 두 조사 시점에 걸친 결혼 상태의 변화 및 연속성은 T1 결혼 상태, T2 결혼 상태, T1-T2 사이의 결혼 상태의 변화에 관한 응답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T1에 무배우 상태(별거, 이혼, 사별, 독신)이었고 T2에 역시 무배우 상태였으며, T1과 T2 사이의 기간 동안 결혼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T1-T2 지속적 무배우”로 구분하였다. 한편, T1에 유배우 상태였으나 T1과 T2 사이에 별거, 이혼, 사별을 경험함으로써 T2에 무배우자 상태인 것으로 보고한 경우는 “T1-T2 배우자 상실”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T1과 T2 두 시점 모두에서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 상태였던 경우에는 “T1-T2 지속적 유배우”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 집단은 이후 분석에서 준거집단으로 이용되었다.

2) 은퇴 상태

응답자의 은퇴 상태는 T1과 T2 각 시점에서의 취업상태 및 T1과 T2 사이의 취업경험, T2에서의 응답자 스스로의 은퇴 상태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범주화하였다. T1, T2 두 시점 모두에서 비 취업 상태였고, T1에서 T2 사이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으며, T2에 스스로를 은퇴자로 정의한 경우, “T1-T2 지속적 은퇴” 범주로 분류되었다. T1에 취업상태였으나, T2에 비 취업 상태이면서 스스로를 은퇴자로 정의한 경우, “T1-T2 은퇴 전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T1과 T2 두 시점 모두에서 취업상태였으며, T1과 T2 사이의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휴직한 경험이 없는 경우, “T1-T2 지속적 취업”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 집단은 이후 분석에서 준거집단으로 간주되었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다차원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에 근거하여(Keyes,

Shmotkin and Ryff, 2002),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부정적 차원 및 긍정적 차원을 모두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긍정적 차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 중에서 개인이 최대한의 기쁨과 최소한의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는 hedonic 접근법과, 개인이 잠재성을 실현하고 심리적/사회적으로 순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는 eudaimonic 접근법을 수용하여(Waterman, 1993), hedonic well-being과 eudaimonic well-being을 모두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위하여 네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정적 차원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울감을 측정하였고, 긍정적 차원의 정신건강 중 hedonic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복감을, eudaimonic 측면의 평가를 위하여 자긍심과 통제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우울감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의 수정된 버전인 12개 문항의 척도를 이용하여, T1과 T2 각 시점에서 측정되었다(Radloff, 1977). 각 문항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응답자들이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경험했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n how many days during the past week did you…… (a) Feel bothered by things that usually don't bother you? (b) Not feel like eating; your appetite was poor? (c) Feel that you could not shake off the blues even with help from your family or friends? (d) Have trouble keeping your mind on what you were doing? (e) Feel depressed? (f) Feel that everything you did was an effort? (g) Feel fearful? (h) Sleep restlessly? (i) Talk less than usual? (j) Feel lonely? (k) Feel sad? (l) Feel you could not get going?” (0 = None, 7 = 7 days)의 문항들이 우울감 측정에 이용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인 쪽으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들 12개 항목에 대한 점수의 합계에 1을 더한 후 로그값을 취하여 이를 우울감 점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값은 T1에서 $\alpha = 0.922$, T2에서 $\alpha = 0.912$ 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단일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would you say things are these days?” (1 = very unhappy, 7 = very happy) 에 대한 응답이 T1, T2 각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자긍심의 평가를 위하여 Rosenberg(1965)의 3항목으로 구성된 self-esteem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T1과 T2에서 동일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자긍심 점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other people”,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1 = strongly agree, 5 = strongly disagree)의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 후 합산하여 자긍심 점수를 얻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문항으로 구성된 자긍심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값은 T1에서 $\alpha = 0.645$, T2에서 $\alpha = 0.610$ 로 나타났다.

T2에서의 통제감은 4항목으로 이루어진 Pearlin Mastery Index(Pearlin et al., 1981)와 자아효율감(self-efficacy)의 측정을 위해 포함된 단일항목을 합한 5항목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I have always felt pretty sure my life would work out the way I wanted it to”, “I can do just about anything I really set my mind to do”, “Sometimes I feel that I'm being pushed around in life”, “There is really no way I can solve some of the problems I have”, “I have little control over the things that happen to me” (1 = strongly agree, 5 = strongly disagree)의 다섯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게 표현되도록 일부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통제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T2 통제감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값은 $\alpha = 0.611$ 로 나타났다. 한편, T1 조사에는 Pearlin Mastery Index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T2 통제감 척도에 상응하는 통제변수로 T1에서 측정된 자아효율감 문항을 이용하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 인종, 교육수준, 소득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입증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Mirowsky and Ross, 2001; Brodaty et al., 2005; Ross and Mirowsky,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을 모든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T1 연령, 인종(1 = 백인, 0 = 백인 이외의 인종), 가구소득, 교육연수, 자녀유무(1 = 유자녀, 0 = 무자녀)를 모든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노년기 정신건강의 변화에 신체건강상의 변화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T1-T2 사이의 신체건강의 변화를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를 통해 산출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자료의 분석결과와 적용하지 않은 자료의 분석결과가 유사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고하

었다. 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표준오차를 제시하기 때문이다(Winship and Radbill, 1994).

3. 조사대상자 특성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T1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이고 T1과 T2 두 시점 모두에서 취업 및 은퇴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응답자 1,798명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주부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1,126명, 남성이 672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50세에서 92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63.83세로 나타났다. 인종별 분포를 보면,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약 79%가 백인이었고 나머지 약 21%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기타 인종이었다.

응답자는 평균 11.46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4.2%가 최소한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15.8%는 무자녀인 것을 볼 수 있다. T1과 T2 두 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98)

	평균/빈도	표준편차/비율
연령	63.83	9.11
가구소득(\$)	29,490	32,833
교육년수	11.46	3.37
성별		
여성	1126	62.6%
남성	672	37.4%
인종		
백인	1423	79.1%
기타	375	20.9%
자녀유무		
유	1511	84.2%
무	284	15.8%
결혼 상태		
T1-T2 지속적 무배우	788	43.8%
T1-T2 배우자 상실	148	8.2%
T1-T2 지속적 유배우	862	47.9%
은퇴 상태		
T1-T2 지속적 은퇴	1010	56.2%
T1-T2 은퇴 전이	297	16.5%
T1-T2 지속적 취업	491	27.3%

주: 결혼치도 인하여 변수간 사례수의 합에 차이가 있음.

사 시점에 걸친 응답자의 결혼 상태 및 은퇴 상태의 연속성 및 변화를 보면,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43.8%가 T1과 T2에 걸쳐 배우자가 없는 상태(별거, 이혼, 사별,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2%는 두 조사 시점 사이에 배우자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7.9%는 두 조사 시점에 걸쳐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상태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56.2%가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으며, 16.5%는 T1에는 취업상태였으나 T1과 T2 사이에 은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27.3%의 분석대상자는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각 종속변수별로 두 단계의 모델에 대한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 모델1에는 결혼 상태와 은퇴 상태가 정신건강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T1-T2의 결혼 상태와 은퇴 상태가 통제변수와 함께 포함되었으며, 모델2에는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혼 상태 및 은퇴 상태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부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모델 추정 결과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1.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먼저 <표 2>에는 T1과 T2에 걸친 결혼 상태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우울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울감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여성응답자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b = 0.136, p < 0.05$), T1에 우울감이 높을수록($b = 0.393, p < 0.01$), T1과 T2 사이에 신체건강의 저하를 크게 경험한 응답자일수록($b = 0.179, p < 0.01$) T2에 우울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상태와 우울감의 관련성을 보면, T1에는 기혼 상태였으나 T1과 T2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T2에 무배우 상태인 것으로 보고한 경우, T1과 T2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배우 상태인 응답자에 비해 보다 현저하게 우울감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b = 0.284, p < 0.01$), 이는 본 연구의 가설1과 일치하는 바이다. 은퇴 상태와 우울감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서,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들이 동일 기간

<표 2>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우울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우울감 (n=1,428)		행복감 (n=1,313)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상수	1.411***	1.397***	4.030***	4.247***
T1 정신건강	0.393***	0.394***	0.281***	0.277***
연령	-0.005	-0.005	-0.001	-0.003
성별(1=여성/0=남성)	0.136**	0.161*	-0.094	-0.254*
인종(1=백인/0=기타)	-0.052	-0.053	-0.105	-0.094
가구소득(\$)	-6.55E-007	6.85E-007	1.38E-007	1.08E-007
가구소득 결측치	0.050	0.049	0.091	0.112
교육년수	-0.011	-0.011	0.011	0.011
자녀유무(1=유/0=무)	0.081	0.079	0.127	0.096
T1-T2 신체건강 변화	0.179***	0.179***	-0.098**	-0.099***
결혼 상태				
T1-T2 지속적 무배우	-0.057	-0.037	0.012	-0.258**
T1-T2 배우자 상실	0.284***	0.418**	-0.415***	-0.225
T1-T2 지속적 기혼(준거집단)	—	—	—	—
은퇴 상태				
T1-T2 지속적 은퇴	0.202**	0.181*	-0.067	-0.097
T1-T2 은퇴 전이	0.076	0.111	0.060	0.052
T1-T2 지속적 취업(준거집단)	—	—	—	—
여성 × T1-T2 지속적 미혼		-0.039		0.390**
여성 × T1-T2 배우자 상실		-0.204		-0.210
여성 × T1-T2 지속적 은퇴		0.032		0.076
여성 × T1-T2 은퇴 전이		-0.065		0.006
R ²	0.214	0.214	0.095	0.100

자료: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T1:1987-1988, T2:1992-1993)

주: * p < 0.10, ** p < 0.05, *** p < 0.01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들에 비해 우울감의 증가가 현저한 것을 볼 수 있으며($b = 0.202$, $p < 0.05$), 이는 가설2의 가정과 일치한다. 가설3의 가정과 달리, 노년기 결혼 및 은퇴 상태와 우울감의 관련성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T1에 행복감이 높았던 응답자일수록 T2에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281$, $p < 0.01$), T1과 T2 사이에 신체건강의 저하를 많이 경험할수록 T2에서 행복감의 저하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b = -0.098$, $p < 0.05$). 한편, 결혼 상태와 노년기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보면, T1에 유배우 상태였으나 T1과

T2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하여 T2에는 무배우 상태인 것으로 보고한 경우, T1과 T2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배우 상태였던 응답자에 비해 행복감이 저하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으며($b = -0.415, p < 0.01$),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1과 일치한다. 한편,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던 응답자의 T1과 T2 간의 행복감의 변화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결혼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간 차이를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3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던 남성의 경우 역시 두 시점에 걸쳐 무배우 상태였던 여성과 달리 행복감의 저하가 보다 현저한 것을 볼 수 있다($b = 0.390, p < 0.05$).

3.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표 3>에는 T1과 T2에 걸친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성인의 자긍심과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T1에서의 자긍심 수준이 높을수록($b = 0.346, p < 0.01$), 연령이 높을수록($b = 0.005, p < 0.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 = 0.021, p < 0.01$) T2에 자긍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1과 T2 사이에 신체건강의 저하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 기간 동안 자긍심의 저하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b = -0.092, p < 0.01$). T1과 T2 기간 동안의 결혼 상태는 노년기 자긍심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기간 동안의 은퇴 상태는 자긍심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집단에 비하여 자긍심의 저하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15, p < 0.01$). 또한, T1에는 취업상태였으나 T2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은퇴를 경험하여 T2에 은퇴 상태였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경우에 비해 자긍심의 저하를 보다 현저히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b = -0.132, p < 0.01$). 이러한 결과들은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의 저하와 관련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2와 일치하는 바이다. 한편, 이러한 T1과 T2 은퇴 상태와 자긍심의 관련성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들 연관성에서의 성별의 중재효과를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3을 위배하는 결과이다.

4.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통제감의 경우를 보면, T1에서 자아효율감(self-efficacy)이 높을수록($b = 0.807,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 = 5.80E-008, p < 0.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 = 0.094, p < 0.01$) T2에서 통제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제감이 낮으며($b = -0.498, p < 0.01$), T1과 T2 사이에 신체건강의 저하를 많이 경험한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제감의 저하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b = -0.316, p < 0.01$). T1과 T2 간의 결혼 상태와 통제감 간의 관련성을 보면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무배우 상태였던 응답자가 두 시점 간에 유배우자 상태였던 경우에 비해 통제감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 = 0.428, p < 0.05$).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상태의 노인이 무배우 상태인 경우에 비하여 정신건강이 양호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

<표 3>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자긍심 및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자긍심 (n=1,498)		통제감 (n=1,498)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상수	2.145 ***	2.160 ***	13.176 ***	13.311 ***
T1 정신건강	0.346 ***	0.345 ***	0.807 ***	0.805 ***
연령	0.005 **	0.005 **	0.011	0.009
성별(1=여성/0=남성)	-0.041	-0.060	-0.498 ***	-0.545 *
인종(1=백인/0=기타)	-0.052	-0.051	0.176	0.185
가구소득(\$)	-7.08E-008	-6.55E-008	5.80E-008**	5.92E-008***
가구소득 결속치	0.009	0.007	-0.520	-0.484
교육년수	0.021 ***	0.021 ***	0.094 ***	0.093 ***
자녀유무(1=유/0=무)	0.066 *	0.066	-0.013	-0.027
T1-T2 신체건강 변화	-0.092 ***	-0.092 ***	-0.316 ***	-0.321 ***
결혼 상태				
T1-T2 지속적 무배우	0.039	0.026	0.428 **	0.185
T1-T2 배우자 상실	0.069	0.052	0.121	-0.045
T1-T2 지속적 유배우(준거집단)	—	—	—	—
은퇴 상태				
T1-T2 지속적 은퇴	-0.215 ***	-0.211 ***	-0.841 ***	-0.744 **
T1 취업 - T2 은퇴	-0.132 ***	-0.170 **	-0.394 *	-0.250
T1-T2 지속적 취업(준거집단)	—	—	—	—
여성 × T1-T2 지속적 미혼		0.019		0.377
여성 × T1-T2 배우자 상실		0.029		0.288
여성 × T1-T2 지속적 은퇴		-0.002		-0.126
여성 × T1-T2 은퇴 전이		0.062		-0.244
R ²	0.157	0.157	0.107	0.107

자료: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T1:1987-1988, T2:1992-1993)

주: * p<0.10, ** p<0.05, *** p<0.01

설1에 위배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한편, 은퇴 상태가 노년기 성인의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T1과 T2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에 비해 현저하게 통제감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설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b = -0.841, p < 0.01$). 본 연구의 가설3과 달리, 결혼 및 은퇴 상태가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의 전국규모 종단 자료인 NSFH(1988-1993)를 이용하여 T1과 T2 두 조사 시점에 걸친 결혼 상태(T1-T2 지속적 무배우, T1-T2 배우자 상실, T1-T2 지속적 유배우)와 은퇴 상태(T1-T2 지속적 은퇴, T1-T2 은퇴전이, T1-T2 지속적 취업)가 노년기에 다양한 차원의 정신건강(우울감, 행복감, 자긍심,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성별이 미치는 중재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T1과 T2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배우 상태이거나 동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인지 주요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무배우 상태이거나 은퇴 상태임으로 인하여 주요 성인지 역할을 상실한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이 양호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가설1과 가설2), 이러한 연관성에 남녀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3).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일부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과 T2 사이에 별거/이혼이나 사별 등을 통하여 배우자 역할을 상실한 노인은 동일 기간 동안 유배우 상태를 유지했던 경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울감이 증가하고 행복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1과 T2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배우 상태였던 노인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행복감의 저하를 보다 현저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Antonucci and Akiyama, 1987).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반대로 무배우 상태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더욱 현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T1과 T2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던 노인들은 동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배우 상태였던 집단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제감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위배되지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하여 자율감(autonomy)이 높고 개인적 성장감(personal growth)이 높다는 점을 보고한 중년기 성인 대상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Marks and Lambert, 1998).

무배우자 상태의 지속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협, 조정, 양보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상태가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며, 결혼 상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의 탐색에서 정신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유용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Marks and Lambert, 1998). 한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eudaimonic 정신건강이 양호할수록 다양한 신체적 건강 지표 또한 양호한 것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Ryff, Singer and Love, 2004),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무배우 상태인 것이 반드시 건강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 모델의 가정이 지지되는 결과로도 보인다.

은퇴 상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의 경우, T1에는 취업상태였으나 T2에 도달하기 전에 은퇴전이를 경험하여 T2에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는 이 기간 동안 자긍심의 저하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T1과 T2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의 경우는 동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현저하게 정신건강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T1-T2 지속적 은퇴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울감의 증가, 자긍심 및 통제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T2 사이에 은퇴전이를 경험한 응답자에 비해, T1-T2 간 5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응답자에게서 정신건강의 저하가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은퇴가 역할상실감으로 연결되어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역할/정체성 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은퇴 전이 직후 1-2년의 기간 동안은 정신건강의 향상이 관찰되는 반면, 은퇴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건강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Gall, Evans and Howard, 1997; Kim and Moen, 2002)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의하면 58세를 일반적인 한국 취업자의 은퇴시기로 볼 때 은퇴 이후에도 남자는 21년, 여자는 26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한겨레, 2006.12.8). 따라서 지속적인 은퇴 상태가 다양한

차원의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 및 정책적 측면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본다. 즉, 후속연구를 통해 은퇴기간 경과에 따른 정신건강 저하의 기제를 규명하는 작업 및 이러한 은퇴 상태의 지속과 정신건강의 저하의 연관성을 증대할 수 있는 보호적 측면의 요인들(protective factors)에 대한 탐색이 절실한 것으로 본다.

은퇴로 인해 상실된 직업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활동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직업역할이나 배우자 역할을 상실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이들의 긍정적 정서와 삶의 목적감(purpose in life)을 높임으로써 노년기 역할 상실에 따른 정신건강 저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Greenfield and Marks, 2004). 한편, 역할 상실로 인한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저하를 다른 가족내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거나 여가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기도 하였다(Vaillant and DiRago, 2006).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보호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은퇴노인의 정신건강 저하를 완화하지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검증되면, 이를 활용한 은퇴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구축을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가설3의 가정과 달리, 결혼과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무배우 상태인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보다 현저하게 행복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결혼 및 은퇴 상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이 남녀간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여성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와 달리 취업여성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해왔으며 이는 남성의 경우와 일면 유사한 역할구조를 소유하고 영위해 온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역할이나 직업역할 상실로 인한 가족 및 직업역할상의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 예상과 달리 직업역할로부터의 경험이나 배우자 역할을 통한 경험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Barnett et al., 1993; Barnett et al., 1994).

요약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결혼과 은퇴 상태의 지속성 및 변화가 노년기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의 유의한 예측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대체로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롭게도 지속적으로 무배우자 상태인 경우는 통제감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1-T2 5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인 경우는 동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정신건강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이후 삶의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들은 지속적 은퇴 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적 중재요인의 규명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해석에는 다음의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본 연구가 역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종단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T1과 T2 두 시점 간 건강변화의 정확한 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역 인과관계의 가능성(예로, 건강 변화로 인한 결혼 상태나 은퇴 상태의 변화)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T1과 T2 사이에 은퇴전이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은퇴 이유를 분석에 포함하는 등의 후속연구를 통하여, 건강저하로 인하여 은퇴를 결정한 경우 등 역 인과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T1과 T2 사이의 결혼 상태와 은퇴 상태의 연속성과 변화를 범주화함에 있어서, T1-T2 사이 배우자 상실 및 T1-T2 사이 은퇴 전이 집단의 경우 T1과 T2 사이의 전이 시점에 대한 통제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로, T1-T2 사이 은퇴 전이 집단의 경우 T1-T2 간 5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은퇴를 경험하였는지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한겨레 (2006.12.8) “통계청 ‘생명표’... 42살 여성인가요? 42년 더 산답니다”
- Antonucci, T. C. and H. Akiyama (1987)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Men and Women” *Sex Roles* 17: 737-749.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 Barrett, A. E. (2000) “Marital Trajector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451-464.
- Barnett, R. C., N. L. Marshall, S. W. Rauvenbush and R. T. Brennan

- (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94-806.
- Barnett, R. C., R. T. Brennan, S. W. Raudenbush and N. L. Marshall (1994)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role Qua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Women and Men in Dual-Earner Coupl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1): 105-127.
- Booth, A. and P. R. Amato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osse, R., C. M. Aldwin, M. R. Levenson, K. Workman-Daniels and D. J. Ekerdt (1990).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ies" *Psychology and Aging* 5: 41-47.
- Brockmann, H. and T. Klein (2004) "Love and Death in Germany: The Marital Biography and its Effect on Mort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567-581.
- Brodaty, H., B. Cullen, C. Thompson, P. Mitchell, G. Parker, K. Wilhelm, M. Austin and G. Malhi (2005) "Age and Gender in the Phenomenology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3(7): 589-596.
- Carstensen, L. L., H. H. Fung and S. T. Charles (2003)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27(2): 103-123.
- Cotten, S. R. (1999)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Revisited: Examining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48: 225-233.
- Ducharme, F. (1994) "Conjugal Support, 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pouse" *Research on Aging* 16: 167-190.
- Fu, H. and N. Goldman (1996) "Incorporation Health into Models of Marriage Choic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40-758.
- Gall, T. L., D. R. Evans and J. Howard (1997) "The Retirement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Retirees across

- Time” *Journal of Gerontology* 52B(3): 110-117.
- George, L. K.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353-373.
- George, L. K. and G. L. Maddox (1977) “Subjective Adapta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 456-462.
- Goldman, N. (1993) “Marriage Selection and Mortality Patterns: Inferences and Fallacies(in Families and Household)” *Demography* 30: 189-208.
- Greenfield, E. A. and N. F. Marks (2004) “Formal Volunteering as a Protective Factor for Older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5): S259-S264.
- Keyes, C. L. M., D. Shmotkin and C. D. Ryff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 Kim, J. E. and P. Moen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B(3): 212-222.
- Maidanik, L. T., K. Soghikian, L. J. Ransom and I. S. Tekawa (1995) “The Effect of Retirement on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The Kaiser Permanente Retirement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50(1): S59-S61.
- Marks, N. F. and J. D. Lambert (1998) “Marital Status Continuity and Change among Young and Midlife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656-682.
- McCrae, R. R. and P. T. Costra Jr. (1993)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Widowed Men and Women: a 10-year Follow up of a National Sample” edited by M. S. Stroebe, W. Stroebe and R. O. Hansson, *Handbook of Bereavement* 196-20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rowsky, J. and C. E. Ross (2001) “A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32-150.
- Pearlin, L., E. G. Menaghan, M. A. Lieberman and J. T. Mullan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ienta, A. M., M. D. Hayward and K. R. Jenkins (2000) "Health Consequences of Marriage for the Retirement Years" *Journal of Family Issues* 21(5): 559-586.
- Price, C. A. and E. Joo (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Women's Retirement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1): 37-55.
- Quadagno, J. (1999) *Aging and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McGraw-Hill.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hardson, V. and K. M. Kilty (1991) "Adjustment to Retirement: Continuity vs. Discontin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3(2): 151-16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C. E. and P. Drentea (1998) "Consequences of Retirement Activities for Distress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4): 317-334.
- Ross, C. E. and J. Mirowsky (2006)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Education on Depression: Resource Multiplication or Resource Substitu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3: 1400-1413.
- Ross, C. E., J. Mirowsky and K. Goldsteen (1990) "The Impact of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Ryff, C. D., B. H. Singer and G. D. Love (2004) "Positive Health: Connecting Well-being with Biology"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359: 1383-1394.
- Smith, K. R. and C. D. Zick (1994) "Linked Lives, Dependent Demise? Survival Analysis of Husbands and Wives" *Demography* 31: 81-93.
- Smock, P. J. (1993)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Young-Women over the past 2 Decades" *Demography* 30(3): 353-371.
- Sweet, J. A. and L. L. Bumpass (1996) "The National Surveys of Families

- and Households Wave 1 and Wave 2: Data Description and Document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weet, J. A., L. L. Bumpass and V. Call (1988)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s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Working Paper #1. Madison, WI: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74-187.
-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 907-917.
- Umberson, D., C. B. Wortman and R. C. Kessler (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10-24.
- Vaillant, G. E. and A. C. DiRago (2006)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in Men's Lives” edited by B. J. Jacquelyn and P. Wink, *The Crown of Life: Dynamics of the Early Postretirement Period* 227-242,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alker, J. W., D. C. Kimmel and K. F. Price (1981) “Retirement Style and Retirement Satisfaction: Retirees aren't all alik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267-281.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c)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 Williams, K. and D. Umberson (2000) “Women, Stress, and Health” edited by M. B. Goldman and M. C. Hatch, *Women and Health* 553-5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inship, C. and L. Radbill (1994) “Sampling Weights and Regression 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3: 230-257.